

‘광주 AI 헬스케어 실증 도시’ 솔루션 개발 본격화

AI사업단, ‘안심구역 테크세미나’ 기업에 데이터·GPU 컴퓨팅 제공 클라우드 기반 의료 데이터 통합 AI진단 등 의료서비스 확산 기대

광주가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지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AI 헬스케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는 ‘안심구역’을 통해 AI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AI 헬스케어 실증 도시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

면 지난 16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 텔에서 ‘K-Health AI 안심구역 테크세 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Health’ 사업의 일환으로 동구 AI 창업캠프 내에 구축된 안심구역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헬스케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 테크노파크,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미소 정보기술, AI 헬스케어 기업 등이 참석해 △국내외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사례 △

AI 의료기업의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전략 △정보보안 및 법적 규제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국립암센터의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사례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았다.

동구 AI 창업캠프 내에 마련된 안심구역은 AI 스타트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GPU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기반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제공해 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데이터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AI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K-Health 안심구역을 통해 AI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다”면서 “기업들의 AI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촉진해 광주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K-Health 사업’은 2025년까지 클라우드 기반 의료 데이터를 통합해 AI 진단 지원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총괄하고 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광주와 인근 도시를 중심으로 AI 의료 실증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320여 개 병·의원의 데이터와 5만 건 이상의 질량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6개의 라이프로그 센터를 운영해 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ha.no@jnilbo.com

전남도, 내일 여순 희생자 추념 기념사이렌

순천·보성 오전 10시...여수 오후 3시 보성차문화공원서 76주기 추념식

전남도는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제 76주기 추념식 행사에 맞춰 오전 10시 순천시와 보성군, 오후 3시에는 여주시 전역에 1분간 묵념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

묵념사이렌은 여수·순천 10·19사건 제 76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울린다. 전남도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여수·순천·보성에 설치된 민방위경보 사이렌 장비를 활용해 사이렌을 울릴 예정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에 울리는 사이렌은 적기 공습에 따른 민방

공 대피 사이렌이 아니므로 주민들께선 놀라지 말고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한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보성군과 함께 오는 19일 오전 10시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76년의 여순10·19,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를 주제로 한 여수·순천 10·19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을 개최한다.

이는 지난 2022년 특별법이 시행된 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부 후원 행사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직접 참석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동구 생물테러 대비훈련 광주 동구 생물테러 대비 대응 훈련이 17일 광주 교통공사 용산차량기지사업소에서 열려 드론에 의한 생물테러 수거 훈련을 하고 있다. 동구보건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훈련에는 동부경찰서, 동부소방서, 31사단 화생방대대, 503여단 기동중대, 119특수대응단, 광주시경찰청, 광주시 드론운용단, 광주교통공사가 참여했다. 김양배 기자

전남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83억 확보

전국 15곳중 7곳 선정 성과 ‘현장 컨설팅 등 선제 대비’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 국고지원 사업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8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4년부터 친환경농업의 확산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신청 대상은 품목별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보한 생산자단체로, 2025년 공모 결과 전국 15개소 가운데 전남 7개소가 선정돼 총 사업비 170억 원 중 49%인 83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공모에 선정된 생산자단체는 보성 북부

농협, 화순 도곡농협, 장흥 용두농협, 해남 ㈜현대친환경농업회사법인, 영암낭주농협, 무안 농업회사법인(유)서호, 함평 농업회사법인 ㈜나비골팜이다.

전남도는 친환경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해 적극 지원하고 자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공모에 대비한 결과 올해까지 193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2004년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을 세워 집중 육성한 결과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허브’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친환경농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AI 활용 영문 도시브랜드 홍보송 제작

전남도가 국제적 마케팅 강화를 위해 만든 새로운 영문 도시브랜드 BI(Brand Identity)인 ‘OK Now Jeonnam(오케이 나우 전남)’의 홍보송을 제작했다.

작곡 전문 인공지능(AI)으로 새롭게 제작된 홍보송은 ‘OK Now Jeonnam’ 브랜드가 전달하는 긍정적 메시지와 미래를 향한 준비성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특히 가사는 ‘OK Now Jeonnam’ 중 Now의 의미인 ‘새로운 기회(New Opportunity)’, ‘전남과 함께(With)’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홍보송은 홍보 영상, 공공 행사, 캠페인 등 비영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홍보송을 AI로 제작한 만큼 직원들이 AI를 일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과 개발을 지원하는 문화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실제 전남도는 그동안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활용 교육을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직원들의 활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생성형 AI 정책 콘테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황병은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앞으로 생성형 AI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각종 업무에 접목해 행정 서비스의 혁신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일자리정보망 고도화’ 도민 서비스 개시

일자리 검색·사후관리 등 윈스톱 민간·공공기관 실시간 업데이트

전남도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전남일자리정보망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대도민 서비스 개시에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7년 만에 새롭게 단장한 전남일자리정보망은 구인·구직자 입장을 생각해 일자리 관련 정보가 필요한 도민과 기업이 정보망에 접속해 회원 등록, 일자리 검색, 구직 신청, 사후관리까지 윈스톱으로 지원받는 처리체계로 구축됐다.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하면 시스템에서 연령층, 거주 지역이 자동으로 설정돼 기

본적인 맞춤형 일자리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원하는 근무지역, 희망직종, 경력, 학력, 고용 형태, 희망 임금 등 맞춤 검색 기능을 추가로 선택하면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일자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간 제약 없이 즉시 상담 가능한 인공지능(AI) 챗봇을 클릭해 질문하면 대화 형식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충분히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면 정보망에서 오프라인 상담 신청을 해 일자리종합센터 상담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민간일job리를 관리하는 고용24, 사람인, 잡코리아와 공공일job리를 관리하는

나라일터 등과 연계해 민간·공공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업데이트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스마트폰 최적화된 웹을 구현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에 접속해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박찬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일자리정보망 개통 시연회에 참석해 구직자 입장에서 시연해본 후 “구인·구직자 모두가 편리하게 일자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겠다”며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지속해서 업로드해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남도달밤야시장 시즌3’ 개장

19·25·26일 대인예술시장 라이브 드로잉쇼 등 풍성

광주시는 19일, 25일, 26일 세차례 동구대인예술시장에서 ‘남도달밤야시장 시즌 3’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즌에는 ‘예술형 야시장’과 ‘관광형 야시장’ 개념을 강화해 문화예술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과 전시들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에서는 지엔 튜디오의 피규어전과 국내 정상급 드

로잉 작가인 시온(Sion)의 작품 ‘리리랜드 4번째 이야기, 포이즌(POISON)’ 전시가 마련된다.

특히 26일에는 시온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 쇼’가 열려 시민에게 정상급 작가의 작품 제작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 아트 컬렉션 숍 ‘수작’에서는 대인예술시장 레지던시 작가 3기의 작품전시와 판매, 공예체험 등이 진행되며, 복합 문화 공간인 별별상상정원은 의상연출(코스튬 플레이) 공간으로 꾸며 새롭게 선보인다.

시즌 3에서는 의상연출을 하고 방문한 어린이에게 선착순으로 선물을 증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표를 통해 최고의 의상연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매력 ‘로컬100선’에 선정된 대인예술시장은 ‘관광형 야시장’에 맞춰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투어 도슨트’를 시즌 3에 무료 운영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야시장을 결합한 상품을 국내 여행 플랫폼에서 선보였다.

자세한 내용은 남도달밤야시장 누리집(<https://daeinya.imweb.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